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강아지의 기도

“사랑하는 주인님, 저를 다정스럽게 대해 주세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저보다 더 당신의 친절에 감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이 저를 때리려 하실 때, 제가 당신의 손을 핏는다고 회초리를 들지는 말아주세요. 제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고 만이니까요. 인내와 이해심으로 잘 가르치신다면 저는 더욱 빨리 당신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게 자주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입니다. 당신의 발소리만 들어도 제 꼬리는 반가움으로 요동

칩니다.

출거나 비가 올 때는 집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전 이미 야생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룯가 당신의 발치곁에 앉게 해주세요. 그건 특권이 아니라 제겐 더없는 영광이니까요.

비록 당신이 변변한 집 한 채 갖고 있지 못해도 저는 얼음과 눈을 뚫고서라도 당신을 따르겠어요. 전 따뜻한 실내의 보드라운 베개를 원치 않아요. 당신의 열렬한 숭배자이기 때문이죠.

제게 깨끗한 먹이를 주세요. 그 레아만 제가 튼튼히 뛰놀며 당신의

지시를 따를 수 있잖아요? 또 제 몸이 건강해야 당신의 옆을 따라 걸으며 당신이 위협에 처했을 때 목숨을 다해 지켜 드릴 수 있고요.

사랑하는 주인님, 하느님이 제게서 건강과 시력을 거둬 가시더라도 절 멀리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며 영원한 휴식을 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제 마지막 호흡까지도 느끼면서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제 운명은 당신의 두 팔 속에서 가장 안전했었다는 기억과 함께...”

베스 N. 헤리스의 ‘강아지의 기도’(A Dog’s prayer)라는 시다. 동물병원에 가면 동물의약품 회사 광고 포스터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시는 반려견에게 반려인이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반려견이 반려인을 위해 얼마나 맹목적으로 순종하는지를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1000만 반려인이 있는 2021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반려인이 이 시 속 ‘강아지’의 기도를 이뤄주고 있을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기 배우 Z씨 대학 동창이라고 밝힌 사람

이 그가 대학 시절 여자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우던 비글을 다른 작은 개로 바꿨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은 그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반려견 한마리와 반려묘 두 마리를 데리고 나온 데 주목하며 과거 SNS에 올렸던 개, 고양이,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 행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Z씨는 한 매체에 “지인이 잘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보낸 것도 파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더욱더 가열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아무나 함부로 반려인이 되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왔다.

반려인은 반려견을 비롯한 반려동물 입양부터 파양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여서다.

저 시 속 강아지처럼 죽는 날까지 반려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반려동물이 어느날 갑자기 반려인과 단절됐을 때 아무런 정신적인 충격

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는 반려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국내 첫 사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시작됐으니 앞으로 확진된 반려동물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 전염시킨 사례는 해외에서도 아직 없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더 두려운 변종 출현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매개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

반려동물이 언제나 ‘가장 안전했다’는 기억만 갖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부디 반려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범류구조상담 13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 고장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상품권·소액결제’ 보이스피싱 진화

얼마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때마침 각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발빠른 제설대책으로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통행이 재개되었지만 문제는 제설 이후 중앙선이나 길 가장자리에 길게 굳어져 있는 눈더미로 인해 운전자들이 해당구간을 통과할 때 가히 곡예운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설 이후 제설이 실시된 구간은 낮시간대는 기온의 영향으로 도로에 남아있던 잔설이 녹아내려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지만 일부 구간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는 낮시간대 녹았던 도로 구간이 살얼음이 어는가 하면 여전히 녹지않고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눈더미가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것이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 탓에 꽁꽁 얼어 붙은 눈더미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리라. 실제로 갓길에 눈이 쌓여 있는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이 눈더미를 밟지 않으려고 차선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운전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더미를 밟게 되는 순간 바퀴가 헛돌것이고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곡예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차로 등에서 차량을 회전해야 하거나 승객을 승차차 시키기 위해 눈더미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에도 눈더미로 인해 사고위험도 상당히 커 보인다.

물론 모든 도로가 이러한 사정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 주요 도로는 전반적으로 제설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도시 외곽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아직 다 치우지 못한 눈과 눈더미가 있어 언제든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등장할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전 노선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완벽한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눈더미가 남아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낮시간대 이상으로 집중하는 한편 가능한 저속 운전과 함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언제라도 불의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행하는 등 방어운전과 안전운행 습관화가 필요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